

문예도서

●체험수기

제9회 불조심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 가작

유라의 꿈

아침 8시 30분.
덩동 소리와 함께 할머니! 하며
유라가 내 품에 안긴다.

매일 이 시간이면 내 품에 안겼다
가 오후 여섯시면 돌아가는 유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받
아 안전만 언제나 그 느낌은 가슴이
아프고, 반가움보다는 가엽고 애처
롭다는 생각이 머릴 꽉 메운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아이건만…
유라는 이제 여섯살. 나이답지 않
게 조숙하고 총명하다. 그것은 유라
의 신체구성상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기 때문에 불균형한 성장을 이루
며 머리쪽만 발달하는 것 같다.

유라는 무릎밑으로 다리가 없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다시 가슴에서
울컥 괴로움이 치받친다.

어른의 부주의로 인해 자신의 인
생이 바뀌어버린 유라…

내 딸은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
경이 좋지 않은 청년과 연애를 하여
부모의 가슴에 아픔을 남긴 채 강원
도 탄광지대인 사북으로 결혼을 하
여 훌쩍 가버렸었다.

내 실망과 아픔은 여간 아니었다.
밤잠도 못자고 가슴을 조여가며 대
학까지 가르쳤건만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한 광부와 결혼을 하다니.

그렇게 해서 딸은 소식도 없이 강
원도 골짜기에서 4년을 지냈고, 나
역시 딸을 그리는 마음과 당장이라
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유라엄마 위독급래'라는 전보가
장난질하듯 날아 들었고 허둥지둥
강원도에 도착했을 땐 탄광촌 골짜기
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간지
럽히며 불고 있었다.

여섯채씩 연이어 지어진 스레트지
봉의 허술한 광부사택에 도착했을 때
딸은 나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켙
한 눈이었고 방엔 구역질날만큼 썩
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성을 찾을겨를도 없이 4년만
에 내 피붙이 같지 않게 변해버린 딸
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으나 딸은
희미한 의식속에 눈꼬리로 주루룩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다.

이웃집 여인이 복멘 소리로 띠엄
띄엄 하는 말을 듣고서야 나는 그
자초지종을 알았고 더욱 오열할 수
밖에 없었다.

세살난 유라를 채워놓고 석유봉로
에 삶을 뺨래를 엎어놓고 잠깐 옆집
엘 갔다가 사람들이 화투를 하고 있
는 걸 구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

김 혜 숙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25번지
명성국민주택가201호)



다가 고만 한번만 한다는 것이 유라
나 빨래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화투
에 열중해버리고 만 것이다.

옆집 꼬마가 숨이 턱에 닿도록 달
려와 불이 났다고 전하는 소릴 듣고
우루루 달려갔을 땐 불길이 벌써 옆
집으로 번지고 딸의 집 지붕 스레트
에선 더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날씨는 건조하고 바람은 알맞게
불었다. 딸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
다 유라를 찾았을 때 불행인지 다행
인지 유라는 이웃집에 뉘어져 있었
다.

그러나 유라는 실신상태였고, 발
목 바로 위까지 입은 화상이 차마
누르고 볼 수 없을 상태였다.

유라를 부드켜 안고 병원에 다달
았을 때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은
화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는 불가능
하고 다리를 발목부분까지 절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남자도 아닌 여자가 다리
를 잘린 후 이 세상을 살겠느냐며, 차
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세살박이 유
라를 싸안고 돌아온 모질고 모진 딸.
딸은 이웃집 아랫목에 세살난 유라
를 이불을 푹 쐐워놓고 자신도 쥐약

을 먹어버렸다.

그제나 곧 발견되어 병원으로 가
목숨을 친졌다. 유라는 다리를 수술
해야 하는 대수술임에도 딸의 고집
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은 집 세기구를 다 태우고서야
꺼졌으며 다행히 그 이상의 인명피
해는 없었다. 황산촌이라 물도 귀했
지만 소방 시설도 미비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불의 원인은 이러했다.

유라가 잠에서 깨어 문을 밀고는
부뚜막으로 내려서면서 부뚜막의 석
유풍로를 건드리는 바람에 끓는 빨
래가 그대로 유라의 다리위로 쏟아
졌고, 석유가 쏟아지면서 목조에 엉
성하게 지어진 집에 순식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우물가에서 놀던 꼬마가 불을 발견하고 소리를 쳐서 이웃집 아낙이
달려왔을 땐 불이 천정의 각목까지
올라가 있었다. 얼핏 유라생각이 난
아낙이 불길속을 더듬으니 한 켠에
쓰러져 있는 유라!

아픔을 참고 텅구느라 다리는 더
엉망이 되었고 그 어린 것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 쓰러져 손

톱끝이 모두 부러져 있더라는 얘기
에, 나는 의식없이 누워있는 딸을
마구 때리며 통곡을 했다.

“네가 부모가슴에 못을 박더니 자
식에게까지 상처를 주는구나! 이 몸
쓸 것이다”

그래도 딸은 그저 누워서 반응이
없었다.

죽겠다고 굶고 누워있는 딸을 입
원시키고 유라도 입원을 시켰다.

유라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을 뒤집어 써운 채, 고열과 살이 썩
어가는 아픔에 시달리면서도 죽지
않았다. 참으로 어쩔수 없는, 살아야
만 하는 운명인가 보았다.

결국 5일만에 수술에 들어간 유
라의 다리는 발목부위만 절단하면
되었던 것을 5일간이나 뜨듯한 아
랫목에서 살이 썩어 무릎밑까지 절
단해야 하는 불행을 초래했다.

내 딸은 무슨 말로도, 무슨 행동으
로도 유라에게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 아이가 자라서 좌절감에
부딪칠 때, 내 다리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을 때 무어라고 답변
을 할 것인가.

유라의 수술한 모습은 인간의 가
장 비참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었다. 온통 붕대에 싸인 다리가
침대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를 마주치며 아득히 먼 곳으
로 떠밀려가고 있었다.

유라의 수술경과가 좋다는 말을
전해들으며 붕대를 풀고 1주일이 지
나도록 간호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나는 가보지 않았다. 도저히 가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다릴 본
단 말인가?

그러나 어쩔수 없이 가슴을 떨며
가 보았을 때 유라는 처음 보는 할머
니를 향해 조그맣고 하얀이를 드러
내며 웃어 주었다.

품에 안고 토실한 궁둥이를 만져

보니 따뜻한 체온이 내 손으로 전해져와 다시한번 숨죽여 흐느껴야만 했다.

유라는 퇴원할 때 까지 온 병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간호원, 의사, 일하는 아줌마들 모두가 출근하면 반드시 유라에게 먼저 들리 뽀뽀를 해주기도 하고 안고가서 놀아주기도 했다.

유라는 명랑하고 예뻤다. 가끔씩 자신의 다리와 다른 사람의 다리를 번갈아 보곤 했지만 자신의 불행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명랑

잃었다. 남은 것이라곤 쓰디쓴 후회와 유라에 대한 죄책감뿐이었다.

지금 딸은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애의 목적은 화재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보다 불조심을 일깨워 주고 미비한 시설이나, 화재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것들을 주의시키는 데 있다.

딸은 욕도 많이 먹는다. 어떨땐 싸움을 하고 들어올 때도 있다. 그러나 딸의 투지는 대단해서 어떠한 일에도 기가 죽거나 실망해 하는 일이 없다. 자신과 같은 불행이 다시

조심을 외치고 다닌다는 것을. 비록 유라를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자식 앞엔 모성 그 자체로 남고 싶다는 것을.

창밖 베란다너머로 아카시아 향기가 어지럽고, 놀이터에선 아이들의 즐겁게 뛰노는 학성이 가득하다.

유라는 베란다에 앉아 불끄러미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앉아있다. 파랗게 핏줄이 돋아나 보이는 유라의 이마엔 초여름 햇볕으로 송글송글 잘디잔 땀방울이 맺혀 있다.

유라의 눈은 부러움으로 가득차 있고 그러다 살짝 웃는다. 바라보니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있는 것이 눈에 띈다. 유라의 꿈은 코피를 흘려도 좋으니 밖에서 저렇듯 신나게 뛰고 달리는 것이라.

내 늙은 다리라도 네게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만 아카시아 향기도, 뛰노는 아이들도 모두 못마땅해지며 베란다 문을 닫고 들어온다.

“유라야, 그럼 그리자.”

“응, 할머니.”

“유란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럼 그리는 사람. 그래서 저렇게 뛰어노는 걸 그리고 싶어.”

나는 할 말을 잊는다.

그래, 그러면, 발로 못하는 것을 손으로라도 맘껏 화폭에 펼쳐 보아라. 하지만 육체가 건강하다고 정신마저 건강한 것은 아니란다. 그걸 알고 정신만은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림을 그리다 잠이 든 유라의 머릴 쓰다듬으며 얼굴을 들여다보니 살짝 웃는다. 꿈에선 즐겁게 뛰노는 꿈을 꾸나보다.

어느덧 여섯시.

계단에 귀를 모으고 유라를 데리러 오는 딸의 발소릴 가려내려 애쓰며 가만히 중얼거려 본다.

“불조심!”



하고 예쁜 아이에 불과했다.

이런 모습이 된 손녀와 딸얘기를 부끄럼없이 하는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시의 부주의로 이보다 더 큰 화재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살펴보고 점검하고 안전을 기하는 정신과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용기를 내어 내 딸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다.

내 딸은 그 불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 남편과 이혼을 했고, 가정도

는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뚜렷한 자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딸은 어딜가나 불조심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처음엔 이런 딸을 미쳤나? 하는 눈으로 아래 위를 훑어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딸을 이해하게 되면 딸이 들렀던 아파트 계단엔 소화기가 놓이기 마련이고 담배불도 꼭꼭 확인하는 꼬마들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딸의 가슴엔 그 누구도 치료해줄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의 아픔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 그렇듯 자신의 몸을 혹사해가며 불